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의 배척 당함(6:1-6), 제자 파송(6:7-13), 요한의 죽음(6:14-29), 그리고 오천 명을 먹인 사건(6:30-44) 등이다. 바다를 건너는 사건(6:45-52)과 병 고침(6:53-56)은 또 다른 사이클(6:45-8:10)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 포함하기로 한다.

예수의 배척 당함(6:1-6)

이 이야기는 예수가 바다를 건너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많은 군중과 함께 축제로 마무리 짓는 줄거리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 하느님의 일(8:33)은 세상의 권세와 지배체제의 눈에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당연히 그들의 배척, 핍박이 뒤따른다. 예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곤 했는데(1:23; 3:1),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다.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부친 이야기가 없다(3:31-35).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은 “다윗의 자손”(마 1:1) 혹은 “요셉의 아들”(눅 4:22; 요 1:45; 6:42)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특별히 “마리아의 아들”(6:3)이란 호칭은 예수를 업신여기는 말이다. 그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이다. 요한복음에는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하는 일은 믿으라고 하는데(요 14:11), 사람들은 예수의 하는 일—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고도 그것을 폄하할 목적으로 그 출신을 들먹인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6:4)는 출신성분, 지연, 학연을 따지는 풍습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숙이 자리한 이런 패거리 문화는 종종 새로운 창조적 질서, 가르침, 변화에 거침돌이 된다.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예수가 회당에 처음 모습을 보인 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며(1:22, 27), 또한 예루살렘 입성 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물었던 질문이다(11:28). 사람들은 예수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지만 독자들은 안다(1:10).

제자 파송(6:7-13)

마가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예수를 죽이려 꾀하자 예수는 물러나 제자들 열 둘을 불러 가르쳤는데, 고향에서 배척당한 후 예수는 그 제자들을 전도의 길로 내보낸다. 30 절에 이들 열 둘은 ‘사도’(apostles)라 불리지만, 마가복음에는 ‘열 두 제자’ 혹은 ‘열 두 사도’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다만 ‘열 둘’(δώδεκα, twelve)이라고만 쓴다. 세리 레위는 열 둘을 택하기 전에 예수의 부름을 받지만 열 둘에 속하지는 않는다(2:14).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제자’(μαθητής, disciple)는 그 사전적 의미로는 ‘배우는 사람’(learner)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열 둘을 포함해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고, 아마도 마가복음 공동체는 스스로를 제자들로 여겼을 것이다.

제자들(여기서는 단순히 “열 둘”)은 예수의 일을 계승한다. 열 둘을 부른 이유가 예수와 함께 하고, 전도를 하며, 또 더러운 영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다(3:14-15).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의 함께 생활했으며, 마침내 그들은 전도(가르침)와 함께 “더러운 영/귀신을 제어하는 권세”(6:7)를 실행한다(6:12-13, 30). 예수가 그 동안 해온 일들이다. 제자들이 전한 “회개”(6:12)는 예수가 공생애에서 처음 한 말이자 마가복음 신학의 주제다(1:15). 지배 이데올로기에 물든 더러운 영으로부터 생각을 바꾸어 하느님의 영에 감동된 삶으로 돌아감이 회개(메타노이아, μετάνοια)다. 이것이 마가복음 후반에서 강조한 “갈릴리로 가라”는 말에 담긴 의미다(14:28; 16:7).

열 둘을 보내며 예수가 강조한 주의 사항은 오늘날 기독교의 전도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거나, 원치 않는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가 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저지른 수 많은 죄는 이 간단한 명령 하나를 지키지 못해 일어난 일들이다. 예수는 자신을 찾는 마을에서 조차 오래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전도를 통해 공동체간의 연계를 도모했다(1:37-38). 강압적인 힘을 바탕으로 지배와 정복(세력확장)이 아니라, 모범된 삶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변혁을 꿈꿨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부활(6:14-29)

제자들이 전도 여행으로부터 돌아와 예수에게 보고하는 장면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샌드위치 기법이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능력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4 BCE-39 CE)는 자신이 제거한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된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가 활동을 시작한 것들 되새기고(1:14), 그 요한의 생애를 결말짓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에서 그 문학적 기능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중간에 위치한 요한의 죽음을 통해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위협, 죽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예수는 세례 요한의 길을 갔으며(9:11-13) 제자들 또한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말했다(13:9-13).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공통적으로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의 하나로 보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다(6:15-16). 이는 예수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누구라 말하는가에 대한 제자들의 보고와 일치한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8:28). 예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선지자에 비유했다(6:4).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을 때, 그 시체의 소생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여기서 부활은 문자적으로 죽은 자의 다시 삶—시체가 벌떡 일어나 걸어다님(마 28:52-53)—을 경험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죽은 자, 앞서 산 자(先生)의 삶과 철학이 그의 제자들에게 되살아나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가 주는 또 하나의 문학적 기능은 이어지는 이야기, 오병이어와의 관계다. 이날 모임은 헤롯이 베푼 만찬 자리로 자신의 생일잔치에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 고위층 인사들”(6:21)을 초대했다. 그는 이 자리를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εὐκαιρος, 6:21)로 삼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음식 먹을 좋은 기회조차 없었다(εὐκαιρέω, 6:31). 헤롯이 이런 기회를 틈타 살생(殺生)을 기획했다면, 예수는 그것을 양생(養生)의 기회로 삼았다.

오병이어: 잔치(6:30-44)

오천 명의 군중을 먹인 이야기는 문학 구조상 제자 파송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한가하게 먹고 휴식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예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3:20), 그들은 식사할 겨를이 없이 또 다시 밀려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 이 이야기의 백미는 오천 명을 먹이는 사건인데, 여러모로 이해와 오해의 대상이다.

먼저 성서적 배경이 떠오른다.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이라는 회복운동(restoration movement)의 연장선에서 모세의 일이 연상된다. 출애굽 이후 모세는 가나안 진출에 앞서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자신을 도와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선출한다(출 18:21). 예수는 군중들을 백 명씩 혹은 오십 명씩 앉게

한다(6:40). 이것이 모세의 군사소집을 염두에 둔 기획일까? 예수는 “목자 없는 양”같은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 표현은 모세 이후에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한 말이다(민 27:17). ‘예수’나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을 달리 표현할 뿐 모두 ‘구원’을 뜻하는 말이다.

오천 명을 먹인 (기적적) 사건 역시 구약 성서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인 일을 기록하고, 요 6:31은 이 만나를 가리켜 ‘하늘로부터 내린 빵’으로 표현한다. 엘리야 사후에 그의 제자 엘리사는 그의 선생 엘리야의 일을 재현하는데(왕하 4:42-44), 특히 엘리야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와 공통점이 많다. 엘리야와 세례요한의 죽음 이후 엘리사와 예수는 소량의 빵으로 다수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긴다. 엘리야로 비유된 요한은 자신 보다 강한 자의 등장을 선언하고(막 1:8),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를 “선지자 보다 더 나은 자”(마 11:9)로 말함으로써 예수를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높게 평가한다.

그럼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장 쉽고 일반적인 이해는 단순히 기적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의 신성, 유일성, 예외성을 증거한다. 문체는 그것으로 끝이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도 행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를 기록하는 저자의 문체는 지극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다.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한다는 어떤 감동, 흥분, 놀람이란 찾아 볼 수가 없다. 떡을 먹은 군중들의 반응도 없다. 오히려 이 점이 독자들에게는 더 이상하다.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윤리적 해석이다. 서로 나누라는 도덕적 교훈이다.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내놓자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서로 나누었다. 한 사람의 기적이야기라기 보다는 한결 그럴 듯한 해석이고 또한 생각해 볼 거리가 된다. 문체는 그런 힌트가 본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인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예수를 마주치고, 행여 그를 놓칠세라 급히 건너편에 미리 가서 대기하는 상황이라 자신들이 날이 저물도록 있으리라는 기대도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문학적 기술 자체가 이 사건을 제자들의 전도 여행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해 본다는 점이다.

혹자는 오천 명(five thousand men)을 다섯(five) 천부장(officials over thousands)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 명씩, 오십 명씩 앉게 한 것 역시 백부장, 오십부장 별로 따로 앉은 것으로 읽지만, 아람어 성경(Peshitta)을 포함 어느 사본에도 반영되지 않은 이해고 번역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보다 상식적으로 말은 되겠지만, 성서를 읽을 때, 현존하는 그 상태에서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

제자들이 제기한 이백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음식은 일일 노동자 이백 명의 일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문과 불평 속에는 많은 사람을 전제한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무력항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소수만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천부장은 커녕 백부장 오십부장과 같은 직위가 필요했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떡을 지어 앉게 한 것 역시 반드시 군사적 사열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무리를 지어 앉힌 것은 향연을 위한 배치며 문학적으로 앞에 기술된 헤롯당의 모임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요세푸스는 요한이 정치적 이유로 처형되었다고 적는다(*Jewish Antiquities*, 18.119). 요한의 악몽이 떠올랐다면, 예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테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려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든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을지도 모른다(요 6:14-15). 예수가 제자들을 재촉해 배에 태워 보낸 것도 같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막

6:45).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데는 아마도 예수를 통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꿈꾸었는지 모른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된다(막 15:2, 26). 예수가 원치 않는 무력항쟁—젤롯당—이 예수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문학적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사회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이미 의미 없는 구상이다. 예수의 정신, 말과 행동을 구체화 하는데 보다 의의가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치고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고한다(6:30).

빈 들에서 푸른 잔디를 찾아 때를 지어 앉았다는 말(39-40)은 헤롯의 생일축하연과 비교된다. 지도자와 고위층의 화려한 향연을 아닐지라도, 이것을 표현하는데 심포지엄(συμπόσιον, party)라는 말을 쓴다. 심포지엄이라고 하면 흔히 좌담회, 토론회 등 학회를 연상하고 랍비 문학에서는 토라 연구를 뜻했다(Boring, 186). 그러나 그 본래 문자적 의미는 ‘함께 마시다’(συμίνω, 행 10:41)에서 파생된 말로 주연(酒宴), 향연을 뜻한다. 헤롯의 향연이 방탕함으로 살생을 가져왔다면, 예수가 베푼 향연은 모두를 생명으로 초대한다.

숫자에 굳이 의미를 두자면, 오천 명에서 다섯(五)은 모세 오경(五經)을 의미하며, 천(千, mille)은 무한정 많은 양을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본다. 하느님이 축복을 통해 자손을 천 배나 많게 하고(신 1:11),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언약을 지킨다(신 7:9). 시편 105:8 은 영원함과 천대를 시적 평행구로 표기한다. 인간의 천 년과 하느님의 하루를 비교한 표현(시 84:10; 벰후 3:8)과 계시록의 천년왕국도 영원함, 무한함을 상징한다. 비밀스런 숫자 144000(계 7:1; 14:1, 3)도 12x12x1000 으로 분석하면, 열 둘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을 암시한 말로 보인다.

두 마리 물고기는 어떻게 이해할까? 본래 예수가 제자에게 물어본 말은 떡(ἄρτος, bread)이 얼마큼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 말씀과 떡은 쉽게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럼 물고기는? 예수는 베드로를 부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고기와 어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빗댄 표현이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물고기 문양이 그들 회합장소나 무덤에 쓰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데도 쓰였다고 한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ἰχθύς(ichthys 로 발음)라고 쓰는데, 각각을 머리글자로 만들면 예수(Ἰησοῦς), 그리스도(Χριστός), 하느님(θεός), 아들(υἱός), 구세주(σωτήρ)가 된다. 곧 예수는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신앙고백을 담고 있다. 언제부터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는 모르나, 마가복음 공동체가 이런 신앙고백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제자들이 초신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볼 수 있다. 오경과 관련해 어떤 서기관이 묻는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12:28). 첫째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경을 두 마디로 줄인 것이다. 빵의 숫자를 묻는 예수에게 빵과 물고기 숫자를 말한 것처럼, 첫째 계명을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는 첫째와 둘째를 말한다. 오병이어의 또 다른 의미다.

생각해 보기

1. 마가복음 6장 본문을 읽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왜 그런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나의 노력(해석)은 무엇인가? 그 근거는?
2.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